

□ YTN 뉴스



[앵커멘트]

본격적인 나무심기철이 다가왔습니다.

내 산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지, 어느 산으로 등산을 가야 할지,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'산림지리정보 사이트'가 일반에 공개했습니다.

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리포트]

내 산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지, 알아볼 수 있는 산림청 웹사이트입니다.

산림청이 마련한 '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(<http://forest.go.kr>)'는 한마디로 맞춤형 조림지도.

전국의 모든 산림에 대해 현재의 수종 분포와 수령정보, 임상도는 물론 지역별로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조림권장 수종정보 제공 사이트입니다.

수종뿐만 아니라 산의 높이와 경사도, 방향, 토양정보 등 자세한 산림지리정보를 제공해 산지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 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

[인터뷰:김찬희,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]

"웹을 통해서 자료와 정보를 알 수 있고 원 클릭으로 지도 도면을 보면서 클릭을 하면 모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."

산림지리정보의 일반 공개는 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산지 활용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민원과 공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'산림지리정보 포털사이트'는 이와 함께 전국 100대 명산에 대한 등산정보 등 다양한 산림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인접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 각종 산림과 관련된 휴양 정보입니다.

[인터뷰:이상길, 산림청 차장]

"산림에 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IT강국의 위상에 맞게 인터넷을 통해서 산지 소유자나 또, 많이 늘고 있는 등산객들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."

전 국토의 64%가 산림으로 이뤄진 우리 나라.

산림 토양의 형태와 성질, 나무의 종류와 나이 등 산림의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
YTN 이정우 [ljwow@ytn.co.kr]입니다.